

##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주현\* 변미희\*\*

### 요 약

본 연구는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에 도착한지 6개월이 지난 새터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새터민 초등학생의 접근성 문제로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 110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친한 친구 수가 1명 이하인 집단,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양친부모가족 집단, 남한생활 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의 초등학생에서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높게 인지하는 집단에서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한 친구 수, 가족형태 중 양친부모가족, 남한생활 기간, 또래지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새터민 초등학생에 대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정책과 교육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새터민 초등학생에게 지속적 보호와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족체계의 지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새터민 초등학생에게 또래집단과 같은 소집단에서의 참여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어 : 새터민 초등학생, 문화적 유능감, 또래지지

논문 제출일 : 2008. 06. 12      최종 심사일 : 2008. 09. 24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주저자.

\*\*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전공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Park, Joo-Hyu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21 Maeju-ri, Seonghwan-eup, Cheonan-city, Chungnam, South Korea 330-707. / E-mail: copierpark@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남한으로 입국하는 새터민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통일부, 2008).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10명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2년부터 매년 1,000명을 초과하여 2005년에는 1,384명, 2006년에는 2,019명, 2007년에는 2,548명으로 전년 대비 26.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2,254명의 새터민이 남한에 입국하여 이들의 대다수가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에 있는 새터민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좋은벗들, 1999)하고 있으므로 대략 10만 명 내외가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터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30~50대, 남자, 군인, 유학생, 단독, 휴전선이나 동구권 등을 통한 입국이 많았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전 연령층에 고루 걸쳐 있고 직종과 신분이 다양하며, 주로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통일부, 2004). 특히 가족단위 입국자가 전체 입국자의 약 50% 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남한에 입국한 가족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또한 가족단위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이처럼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면서 새터민 초등학생의 입국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5세 이하 초등학교 해당자의 입국자수는 전체 입국자의 4% 정도로 추산할 때 2007년 12월말 현재 약 5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통일부, 2007; 통일부, 2008).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 오지만 중국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면서 희망이 없는 북한으로 귀환하기 보다는 희망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새터민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대규모 북한주민이 이탈을 시작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의 북한이탈의 주요 동기는 정치적 탄압보다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식량과 경제적 원조를 획득하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북한이탈 원인은 경제난을 포함하여 외부 정보의 획득과 자유, 희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 등 점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의 주요한 한 요인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김형태, 2004).

한편으로 새터민 초등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들의 학력결손 비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2001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하나둘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겪은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학력결손은 남한에서 정규학교의 진학을 어렵게 하여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단지 38%만이 제도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울러 학교에 진학했던 청소년들조차 학력이 부진하거나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약 14%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남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의 10배에 이르는 비율이다(박윤숙, 2006; 정병호, 2006;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6; 정진웅, 2006).

특히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을 거치면서 겪은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흔히 이들이 성인보다 남한 문화에 더 쉽게 적응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많은 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정체감 혼란을 겪는 시기인데,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는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성인으로의 적응과정에 더하여 새로운 문화적응이라는 과제를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어 더욱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정진경 등, 2006). 아동들에게는 아동에게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체계에 의한 지원정책이 요구되기에 현재의 국가나 민간단체의 서비스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제를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새터민의 적응·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수십 편에 이르고 있지만, 주로 성인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남한의 대학생 연령대까지를 포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만길·김양분·박정현, 2000; 이기영, 2001; 이기영, 2002; 길은배·문성호, 2003a; 길은배·문성호, 2003b; 김형태, 2004; 황진수·전신욱, 2004; 박윤숙, 2006; 백해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2006; 정옥환, 2006). 그나마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다수도 문헌에 기초하였거나 소수의 새터민 청소년과의 면담에 의한 탐색적 연구로, 청소년기의 전단계인 아동기의 새터민 초등학생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문화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여 정부나 민간 단체의 새터민 초등학생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전략의 개선은 물론 특화된 서비스전략의 개발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변인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조사대상자의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군, 주관적 변인 군, 사회적 관계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적 유능감

한 개인이 기존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문화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적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둘 이상의 문화가 서로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의 과정을 문화적응이라고 한다. LaFromboise, Coleman & Gerton(1993)이 양문화유능감(bicultural competence) 개념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문화적응 전략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적 정체감 형성이라는 변인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문화적 정체감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양식의 습득과 실행 내용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느냐가 문화적응 수준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있다(채정민, 2003). 이 관점은 LaFromboise를 필두로 한 일단의 학

자들은 “어떤 사람이 양문화에 대해 문화적 정체감을 절충하지 않고도 두 집단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념이나 확신”을 양문화유능감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새로 이주한 사람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유능감의 획득 여부이다. 이때 습득하는 것은 해당 문화에서 규정하는 세계관까지를 포함한다. 이 세계관을 습득해야만 새로운 문화에서 이 사람이 문화적 유능감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chiller, 1987).

LaFromboise 등(1993)에 따르면 양문화유능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이주자는 원문화와 새로운 문화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와 문화적 기술 습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이러한 정보 취득과 문화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된다. 여기서는 주로 해당 사회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적 기술은 주로 역할 레퍼터리(repertoires) 습득 차원을 말한다. 이는 문화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이주자는 해당 정착사회에서 잘 발전된 지지체계를 가짐으로써 정착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채정민, 2003).

이러한 양문화유능감 개념을 요약하면, 개인과 그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중시된다는 점이다(LaFromboise 등, 1993). 한성열(2003)은 적응의 결과를 문화적 유능감으로 평가하는 이 개념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문화적 정체감 형성보다 개인의 기능적, 상황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원문화집단과의 관계성이 밀접하게 유지될 때는 이 개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학습의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과 문화적응을 위해 교육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넷째, 세계관과 같은 문화보다 상위의 관점이 중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개념의 단점으로는 첫째, 집단차원의 문화적응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개인의 학습능력과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셋째, 원문화집단과의 차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넷째, 일시적인 문화 적응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이 개념은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적응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 정체감이나 문화 정체감이 지닌 정서적 안정성과 같은 점은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이 양문화유능감은 자기와 관련된 성격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정체감이 양문화 유능감과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utierrez, 1981; Schlossberg, 1981). 그리고 Bhatia(2002)의 연구에서는 양문화유능감은 집단적 수준에서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주민들이 별도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능감을 지닌 이주민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채정민, 2003).

## 2. 새터민 관련 선행연구 검토

새터민의 증가와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새터민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 성인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새터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 도착연령, 지각된 문화이질감, 자기의식, 북한문화 지향성 등이 문화적 유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남한문화 지향성과 지각된 동화압력으로 나타났다. 즉 도착연령과 자기의식 변인은 북한문화 지향성과 지각된 동화압력을 경유하여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문화이질감과 자기의식은 남한문화 지향성을 경유하여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터민들은 사회적 연계체계가 부족하면 남한사회에서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전우택·민성길, 1996; 이소래, 1997; 김미령, 2004).

다음으로 새터민 청소년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제3국을 떠돌며 죽음을 무릅쓴 고향 끝에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역사와 전통적 생활양식을 공유해온 남한과 북한은 문화차이에 있어서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심각한 적응문제를 갖는 다른 이주·난민청소년과는 달리 비교적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한을 떠나 자유의 남한으로 온 새터민 청소년을 환영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의 분위기, 이제껏 누리볼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며 동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데 대한 기대감은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박윤숙2006).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사회체제는 정체감 형성기에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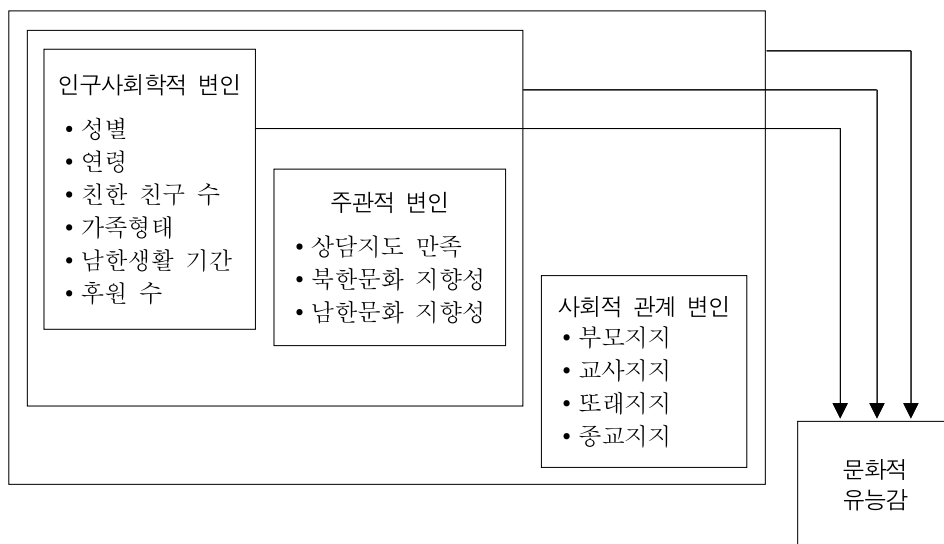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우택(2000)은 새로운 생활환경인 학교생활, 거주지 환경,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기영(2001)은 심리·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형태(2004)는 사회적 지지체계들의 영향이 남한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의 요인들을 참고하여,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주관적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 등으로 설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남한에 도착한지 6개월이 지난 새터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6개월이 지난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남한에 정착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남아 있으며,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정확한 인지를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엄태완, 2004). 자료수집방법은 2008년 1~2월 동안 새터민 초등학생의 접근성 문제로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 111부 중 11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측정도구 및 자료의 분석방법

### 1) 측정도구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새터민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친한 친구 수, 가족 형태, 남한생활 기간, 후원 수 등을 파악하였다.

#### (2) 북한문화·남한문화 지향성

채정민·한성열·허태균·김동직(2002)이 Berry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 개념에 따라 한국에 유입하는 북한이탈주민용으로 4점 척도의 총 16개 문항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터민 초등학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문항의 표현을 간소화하여 수정하였다. 북한문화 지향성과 남한문화 지향성으로 각 8개 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지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0과 .80으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관계

부모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터민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터민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alpha$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또래지지 척도는 정선욱(2002)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터민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1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alpha$  값은 .74로 나타났다. 종교지지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종렬(2006)의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2로 나타났다. 모든 척도의 측정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 (4) 문화적 유능감

LaFromboise 등(1993)이 제시한 양문화유능감의 개념에 따라 한성열(2003)이 번안한 것으로 채정민(2003)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터민 초등학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문항의 표현을 간소화하여 수정하였다. 측정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의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 2) 자료의 분석방법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새터민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 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51.8%, 여자가 48.2%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11.06세로 10세 이상 69.1%, 9세 이하 30.9%로 나타나 남한 초등학생의 학교과정 나이보다 대체로 2~3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친한 친구 수에서는 2~3명 37.3%, 4명 이상 33.6%, 0~1명 29.1%의 순으로 나타나 친한 친구 수의 평균은 2.86명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로는 양친부모가족 56.4%, 모한부모가족 29.1%, 부한부모 및 기타 가족 14.5%의 순으로 분포되어 한부모 및 부모 모두가 없는 초등학생이 43.6%로 나타나 남한의 일반적인 가족형태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 하겠다. 평균 남한생활 기간은 22.95개월이며 12개월 미만 40.9%, 36개월 이상 24.5%, 12~24개월 미만 18.2%, 24~36개월 미만 16.4%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후원 수에서는 물질적·정신적 후원 수가 적음 56.3%, 많음 25.2%, 보통 18.4%의 순으로 분포되어 대체로 후원 수가 적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110명)

| 변인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 성별      | 남자         | 57(51.8) |              |
|         | 여자         | 53(48.2) |              |
| 연령      | 9세 이하      | 34(30.9) | 11.06(2.47)  |
|         | 10세 이상     | 76(69.1) |              |
| 친한 친구 수 | 0~1명       | 32(29.1) | 2.86(2.08)   |
|         | 2~3명       | 41(37.3) |              |
|         | 4명 이상      | 37(33.6) |              |
| 가족형태    | 양친부모가족     | 62(56.4) |              |
|         | 모한부모가족     | 32(29.1) |              |
|         | 부한부모·기타가족  | 16(14.5) |              |
| 남한생활 기간 | 12개월 미만    | 45(40.9) | 22.95(20.64) |
|         | 12~24개월 미만 | 20(18.2) |              |
|         | 24~36개월 미만 | 18(16.4) |              |
|         | 36개월 이상    | 27(24.5) |              |
| 후원 수    | 많음         | 26(25.2) | 2.15(1.54)   |
|         | 보통         | 19(18.4) |              |
|         | 적음         | 58(56.3) |              |

새터민 초등학생의 주관적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의 일반적 수준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상담지도에 대한 만족, 즉 각 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성직자 등으로 부터의 상담지도에 대한 만족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족 52%, 만족 48%로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한문화 지향성은 평균 3.96점, 북한문화 지향성은 평균 2.82점으로 나타나 남한문화 지향성은 보통 이상, 북한문화 지향성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북한문화 지향성보다 남한문화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이전의 문화(북한문화)와 새로운 문화(남한문화) 모두에서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남한문화 지향성이 북한문화 지향성보다 높아야 적응수준이 높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새터민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지지 평균 3.93점, 교사지지 평균 3.49점, 종교지지 평균 3.34점, 또래지지 평균 3.17점의 순으로 부모지지 정도를 가장 높게 느끼고, 또래지지 정도를 가장 낮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gt; 주관적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의 일반적 수준

(전체: 110명)

| 변인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 상담지도 만족  | 불만족  | 53(52.0) |           |
|          | 만족   | 49(48.0) |           |
| 북한문화 지향성 |      |          | 2.82(.74) |
| 남한문화 지향성 |      |          | 3.96(.69) |
| 사회적 관계   | 부모지지 |          | 3.93(.61) |
|          | 교사지지 |          | 3.49(.66) |
|          | 또래지지 |          | 3.17(.43) |
|          | 종교지지 |          | 3.34(.87) |

##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

새터민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은 친한 친구 수( $p<.05$ ), 가족 형태( $p<.01$ ), 남한생활 기간(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먼저 친한 친구 수의

경우, 친구 수가 0~1명인 집단의 초등학생(3.21점)이 4명 이상인 집단의 초등학생(2.94점)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 친구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재론하고자 한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양친부모가족 집단의 초등학생(3.20점)이 모한부모가족인 집단의 초등학생(2.92점)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생활 기간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인 집단의 초등학생(3.37점)이 1년 미만(3.37점)인 집단의 초등학생(2.90점), 1~2년 미만인 집단의 초등학생(3.10점)과 2~3년 미만인 집단의 초등학생(3.13점)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 (전체: 110명)

| 변인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사후검정(D) | F/t값 및 유의도 |
|---------|------------|----|-----------|---------|------------|
| 성별      | 남자         | 57 | 3.06(.46) |         | -.70       |
|         | 여자         | 53 | 3.12(.42) |         |            |
| 연령      | 9세 이하      | 34 | 3.00(.32) |         | -1.47      |
|         | 10세 이상     | 76 | 3.13(.48) |         |            |
| 친한 친구 수 | 0~1명       | 32 | 3.21(.50) | b       | 3.51*      |
|         | 2~3명       | 41 | 3.12(.36) | ab      |            |
|         | 4명 이상      | 37 | 2.94(.45) | a       |            |
| 가족형태    | 양친부모가족     | 62 | 3.20(.45) | b       | 5.11**     |
|         | 모한부모가족     | 32 | 2.92(.41) | a       |            |
|         | 부한부모·기타 가족 | 16 | 2.98(.33) | ab      |            |
| 남한생활 기간 | 12개월 미만    | 45 | 2.90(.34) | a       | 7.62*      |
|         | 12~24개월 미만 | 20 | 3.10(.36) | a       |            |
|         | 24~36개월 미만 | 18 | 3.13(.36) | a       |            |
|         | 36개월 이상    | 27 | 3.37(.55) | b       |            |
| 후원 수    | 많음         | 26 | 3.09(.34) |         | 1.22       |
|         | 보통         | 19 | 3.23(.54) |         |            |
|         | 적음         | 58 | 3.25(.46) |         |            |

\*p<.05, \*\*p<.01

D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 3. 주관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

새터민 초등학생의 주관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은 상담지도 만족, 북한문화 지향성 그리고 남한문화 지향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이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모두에서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Berry 등(1992)의 주장을 지지한다. 즉 새터민 초등학생은 북한의 우수한 면을 지키는 북한문화 지향성과 남한의 우수한 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남한문화 지향성을 동시에 가져야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터민 초등학생은 북한문화와 상당히 차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위에서 언급한 선결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이다. 따라서 북한문화 지향성 또는 남한문화 지향성이 문화적 유능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표 4> 주관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

(전체: 110명)

| 변인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F/t값 및 유의도 |
|----------|-----|----|-----------|------------|
| 상담지도 만족  | 불만족 | 53 | 3.05(.49) | -.84       |
|          | 만족  | 49 | 3.13(.41) |            |
| 북한문화 지향성 | 높음  | 34 | 3.13(.45) | .85        |
|          | 보통  | 39 | 3.10(.44) |            |
|          | 낮음  | 36 | 3.00(.42) |            |
| 남한문화 지향성 | 높음  | 39 | 3.11(.52) | .09        |
|          | 보통  | 42 | 3.07(.41) |            |
|          | 낮음  | 29 | 3.08(.36) |            |

### 4.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

새터민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은 부모지지( $p<.01$ )와 또래지지(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먼저 부모지지의 경우, 부모지지가 높음인 집단의 초등학생(3.25점)과 보통인 집단의 초등학생(3.10점)이 낮음인 집단의 초등학생(2.89점)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지지에서는 또래지지가 높음인 집단의 초등학생(3.29점)이 보통인 집단의 초등학생(3.25점)과 낮음인 집단의 초등학생(2.88점)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 초등학생은 사회적 관계에서 교사지지나 종교지지보다는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높게 받아야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

(전체: 110명)

| 변인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사후검정(D) | F비 및 유의도 |
|------|----|----|-----------|---------|----------|
| 부모지지 | 높음 | 35 | 3.25(.45) | b       | 5.88**   |
|      | 보통 | 43 | 3.10(.47) | b       |          |
|      | 낮음 | 30 | 2.89(.30) | a       |          |
| 교사지지 | 높음 | 35 | 3.24(.46) |         | 2.73     |
|      | 보통 | 36 | 3.06(.33) |         |          |
|      | 낮음 | 35 | 3.01(.48) |         |          |
| 또래지지 | 높음 | 41 | 3.29(.47) | b       | 9.14***  |
|      | 보통 | 38 | 3.05(.27) | a       |          |
|      | 낮음 | 30 | 2.88(.47) | a       |          |
| 종교지지 | 높음 | 38 | 3.18(.45) |         | 1.21     |
|      | 보통 | 44 | 3.07(.39) |         |          |
|      | 낮음 | 25 | 3.01(.51) |         |          |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 5.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주관적 변인군, 사회적 관계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즉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독립 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주관적 변인군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사회적 관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6).

먼저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1단계 결과, 인구사회학

적 변인군 중 새터민 초등학생의 연령( $\beta=.23^*$ ), 친한 친구 수( $\beta=-.33^{***}$ ), 가족형태 중 양친부모가족( $\beta=.34^*$ ), 남한생활 기간( $\beta=.30^{***}$ )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형태는 모한부모가족보다 양친부모가족이, 남한생활 기간이 길수록, 친한 친구 수는 적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2단계에서 주관적 변인군을 추가한 결과, 친한 친구 수( $\beta=-.31^{***}$ ), 가족형태 중 양친부모가족( $\beta=.39^*$ ), 남한생활 기간( $\beta=.36^{***}$ ), 북한문화 지향성( $\beta=.28^{**}$ )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가족형태는 모한부모가족보다 양친부모가족이, 남한생활 기간이 길수록, 북한문화 지향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 변인               |          | 문화적 유능감       |         |         |         |         |         |
|------------------|----------|---------------|---------|---------|---------|---------|---------|
|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사회<br>인구학적<br>변인 | 성별       | .01           | .01     | -.03    | -.03    | -.03    | -.03    |
|                  | 연령       | .04           | .23*    | .03     | .16     | .01     | .08     |
|                  | 친한 친구 수  | -.07          | -.33*** | -.07    | -.31*** | -.06    | -.30*** |
|                  | 가족<br>형태 | 양친부모가<br>족    | .30     | .34     | .34*    | .33     | .37*    |
|                  |          |               |         |         |         |         |         |
|                  |          | 부한부모·기<br>타가족 | .01     | .08     | .08     | .13     | .13     |
|                  | 남한생활 기간  | .01           | .30***  | .01     | .36***  | .01     | .32***  |
| 심리적<br>변인        | 후원 수     | .02           | .05     | .01     | .02     | .02     | .06     |
|                  | 상담지도 만족  |               |         | .04     | .07     | .04     | .08     |
|                  | 북한문화 지향성 |               |         | .18     | .28**   | .09     | .14     |
|                  | 남한문화 지향성 |               |         | .07     | .09     | .09     | .13     |
| 사회적 관계<br>변인     | 부모지지     |               |         |         |         | -.07    | -.09    |
|                  | 교사지지     |               |         |         |         | .11     | .17     |
|                  | 또래지지     |               |         |         |         | .27     | .27*    |
|                  | 종교지지     |               |         |         |         | .01     | .01     |
| F비 및 유의도         |          | 6.81***       |         | 6.33*** |         | 5.99*** |         |
| R2               |          | .371          |         | .448    |         | .531    |         |
| R2 증가량           |          | .371***       |         | .077*   |         | .083*   |         |

\* $p<.05$ , \*\* $p<.01$ , \*\*\* $p<.001$

가변인 : 성별(기준: 여, 비교: 남), 가족형태(기준: 모한부모가족, 비교: 양친부모가족, 부한부모·기타가족)

마지막 3단계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군을 추가한 결과, 친한 친구 수( $\beta = -.30^{***}$ ), 가족형태 중 양친부모가족( $\beta = .37^*$ ), 남한생활 기간( $\beta = .32^{***}$ ), 또래지지( $\beta = .27^*$ )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가족형태는 모한부모가족보다 양친부모가족이, 남한생활 기간이 길수록, 또래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각 단계별 변인군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군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37.1%( $p < .001$ )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관적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4.8%( $p < .001$ )로 1단계에 비해 7.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마지막 3단계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53.1%( $p < .001$ )로 2단계에 비해 8.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3단계에서 2단계보다 설명력이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새터민 초등학생의 주관적 변인군도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보다도 사회적 관계 변인군이 문화적 유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군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군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변인군이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변인군임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친한 친구 수가 1명 이하인 집단,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양친부모가족 집단, 남한생활 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의 초등학생에서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선행연구(김형태, 2004; 박윤숙, 2006; 백혜정 등,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단지 북한친구나 남한친구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 수에 따라 적응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친한 친구 수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경우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는 오히려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김형태(2004)의 연구결과와 남한친구와의 친밀도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백혜정 등(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또래지지가 높은 경우에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다른 항의 결과와도 함께 검토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새터민 초등학생은 친구 수가 많은 것보다는 친밀도가 깊은 적은 수의 친구가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인정하며, 보다 명확한 규명을 후속연구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둘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주관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문화적 유능감은 상담지도 만족, 북한문화 지향성 그리고 남한문화 지향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문화 지향성과 남한문화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지표에 대해 아주 많은 설명력을 보이지 못한 채정민(2003)의 북한이탈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 Berry 등(1992)도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이전의 문화(북한문화)와 새로운 문화(남한문화) 모두에서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새터민 초등학생은 북한의 우수한 면을 지키는 북한문화 지향성을 가지는 동시에 남한의 우수한 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남한문화 지향성을 가져야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화 지향성이나 남한문화 지향성만으로는 문화적 유능감에 유의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Berry 등(1992)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지지와 또래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부모지지의 경우, 부모지지가 높음인 집단과 보통인 집단의 초등학생이 낮음인 집단의 초등학생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지지에서는 또래지지가 높음인 집단의 초등학생이 보통인 집단과 낮음인 집단의 초등학생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새터민 초등학생은 사회적 관계에서 교사지지나 종교지지보다는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높게 받아야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형태, 2004; 박윤숙, 2006)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청소년의 적응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적인 지지원의 존재는 필요조건으로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다.

넷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한 친구 수, 가족형태 중 양친부모가족, 남한생활 기간, 또래지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가족형태는 모한부모가족보다 양친부모가족이, 남한생활 기간이 길수록, 또래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각 단계별 변인군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군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37.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관적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1단계에 비해 7.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2단계에 비해 8.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3단계에서 2단계보다 설명력이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새터민 초등학생의 주관적 변인군도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보다도 사회적 관계 변인군이 문화적 유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터민 초등학생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새터민 초등학생에 대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정책과 교육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터민 초등학생의 정착 및 적응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임시적·구호적 지원에서 그들이 자립하여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심리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적 전략이 수립되어 그들에게 재사회화 교육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새터민 초등학생에게 지속적 보호와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족체계의 지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모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정하고 자신감과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자원이다.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프로그램이나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의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상당수의 아동이 이탈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어 한부모아동, 조손아동, 무연고아동 등으로 변화되었다. 가족 해체는 심리적인 고통은 물론 사회적 역할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보호자를 확보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새터민 초등학생에게 또래집단과 같은 소집단에서의 참여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

여야 한다. 이들이 소집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과 작용하여 남한사회 부정적응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빠르게 변화하는 남한사회 정보를 습득하여 적응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미령(2004). 탈북자의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방화와 사회복지현장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507-527.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길은배·문성호(2003a).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한국청소년학회지, 10(4), 163-186.
- 길은배·문성호(2003b).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태완(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감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오름.
- 전우택·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도서출판 오름.
- 정병호(2006).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연구.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15-25. 한양대학교출판부.
- 정옥환(2006).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증진을 위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경·정병호·양계민(2006).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263-282.
- 정진웅(2006). 탈북 청소년 적응교육의 의미와 한계.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283-297. 한양대학교출판부.
- 좋은벗들 엮음(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토출판.
-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한성열·허태균·김동직(2002).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전략 척도 개발.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85-94.

- 통일부(2004). 통일부 정착지원과 내부자료.
- 통일부(2007). 통일부 정착지원과 내부자료.
- 통일부(2008). 2008 통일백서. 정부간행물제작소.
- 한만길·김양분·박정현(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 연구: 탈북학생의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한성열(2003). 한민족 통합을 위한 문화적응 모델 수립: 기존의 문화적응 모델에 대한 비판적 재고. 성곡학술문화재단 연구보고서.
- 황진수·전신욱(2004).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지원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지, 8(3), 1-26.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hatia, S.(2002). Acculturation, dialogical voic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diasporic self. *Theory and Psychology*, 12(1), 55-77.
- Gutierrez, F. J.(1981). A process model of bicultural personality developmen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 3871B(University Microfilms No. DA8203892).
- LaFromboise, T., Coleman, H. L. & Gerton, J.(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 Schiller, P. M.(1987). *Biculturalism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Native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8, 1542A(University Microfilms No. DA8720632).
- Schlossberg, N. K.(1981). A model for analyzing human adaptation to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 2-36.

Abstract

## Factors Affecting the Cultural Capability of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Park, Joo-Hyun\*

Byun, Mi-Hee\*\*

With the several factors concretely derived which have influence on the cultural capability of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ground of intervention methods for them to adapt themselves to the society of the South Korea. By way of gathering data, snowball sampling was used due to the problem of gaining access to them and 110 questionnaires written out by them were applied as analysis dat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view of the cultural capability according to population-social variation among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the group of students showed high cultural capability who had less than one close friend, were under their parental roof in family types, and had lived in the South Korea for more than three years.

Second, in the aspect of the cultural capability according to social variation of relationship among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the group of students showed high cultural capability who highly recognized the support not only from their parents but also from friends of their age.

Third, the variation affecting the cultural capability of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appeared as the number of close friends, the family under the parental roof in terms of family types, the duration of living in the South Korea, and the support from friends of an age.

**Key Words** :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cultural capability, support from friends of an age.

---

\* Lecturer,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ristian Welfare, Baekseok University.